

7차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 실업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

Contents Analysis of Personal Finance Education Curriculums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Focusing on the Curricular of Home Economics & Social Science -

해운대중학교
교사 최은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최현자

Haeundae Middle School
Teacher : Eunjin Choi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uncha Cho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분석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the solution of problems originated from financial illiteracy. To accomplish this task, the contents which supposed to be taught in the area of personal finance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ar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en, the personal finance contents taught in public education system were analyzed using contents analysis of over 100 text books related to Personal finance education, such as Home Economics, Social Science, Economics, and Human Life Sciences, etc.

Based on the results, followings were concluded. In spite of the fact that only few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topics were included in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many topics taught in the subject of Social Science were duplicated in the Home Economics Curricular. To accomplish the ultimate goal of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an

Corresponding Author: Hyuncha Choe,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il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45 Fax: 82-2-871-2506 E-mail: hychoe@snu.ac.kr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일부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ntroduction of the new course(Personal Finance) in the regular curriculum like U.S. is strongly recommended.

주제어(Key Words):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금융소비자교육(Personal Financial Education),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1. 서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에 대한 원인으로 신용교육의 부재가 대두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교육이란 거시적·미시적 경제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및 활동과 경험들을 구성하여 일생동안 경제 자원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재무관리교육(Education for Personal Finance 또는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현자, 최은진, 2005). 경제교육이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원칙이나 경제시스템 등의 이해를 통해서 경제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면 금융소비자교육은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소비자원칙을 이해하고, 자신과 가계의 금융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얻고,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 속에서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되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 및 경험을 의미한다(U.S.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2002).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 기업, 소비자단체, 학교 등에서 풍부한 교육자료들을 마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교육이 개인의 금융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교육지원법(Youth Financial Education Act)』을 법제화하고 재무성 내에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하여 ‘부자나라 미국’을 21세기에도 유지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은 1988년 『교육법(Education Reform Act 1988)』이 성립된 이래 경제·금융 교육이 중시되어 왔으며 최근 이를 확충하는 속도가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민은행 부설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지난 2002년 9월 한국, 미국,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금융행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중 약 28%는 가정이나 학교 어디에서도 금융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약 36%는 학교에서 소비생활이나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을 받았다는 경우에도 대부분 저축의 필요성이나 올바른 소비생활 등 기초적인 분야를 배웠을 뿐으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이나 사회교육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교

육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중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체계를 지니고 있는 교과인 ‘실업과’와 ‘사회과’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금융소비자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관련 교과목간의 교육내용의 재조정에서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분석 실행연구고찰

1. 실업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실업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표 1〉 실과(기술·가정)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 간의 비교

	교육 과정	해당 학년
김종호(1993)	1차 ~ 6차 교육과정	초등 1~6학년
김해자, 전경란, 이은희(1997)	6차 교육과정	초등 1~중학교
김영옥(1998)	4차 ~ 6차 교육과정	초등 1~6학년
김영옥(2001)	4차 ~ 6차 교육과정	초등 1~6학년
이승신, 김민경, 조정자(2003)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2학년

1) 우리나라 현행 초·중등교육은 제 7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며 크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11~12학년(고등학교 2~3학년)은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에 해당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 있는 교과는 ‘실과(기술·가정)’와 ‘사회’로 볼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슬기로운 생활이 해당된다.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경우 실업과의 심화선택과목 중 ‘가정과학’, 사회과의 심화선택과목인 ‘경제’ 그리고 교양과의 일반선택과목으로 ‘생활경제’가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체계가 있는 교과목이다. ‘가정과학’ 과목은 소비생활,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중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이 큰 소비생활 영역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인 소비자의 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생활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 과목은 현실 경제의 인식, 경제 사회 변동의 전망과 대응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실용적 지식의 체계적 이해와 기능 숙달 및 바람직한 가치 판단을 위하여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한편 ‘생활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 제도 아래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경제 주체로서 시민의 경제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교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 생산자, 저축·투자자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 과목이다(고등학교 교육 해설 -15. 교양 -, 1998, 104.).

들은 대부분 의·식·주생활 및 가족생활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금융소비자교육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제 6차 교육과정의 가정교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김혜자, 전경란, 이은희(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에서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의 '합리적인 용돈쓰기'가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소비생활 영역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있으나 금융소비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가정자원의 활용', '지원관리, 환경문제', '자신의 시간, 일 관리', '구매의사 결정', '소비자 정보의 활용', '소비자 문제의 해결' 등과 같은 내용이 1~2학년에서 가르쳐 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정교과서에서 소비생활 영역은 의·식·주생활 및 가족생활 영역에 비하여 쪽수 구성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김종호(1993) 연구에서는 제 1차 교육과정에서 제 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소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과거 소비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절약을 위한 소비 생활 등에 불과하였다.

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의 일부분에서도 가정교과내의 재무관련 영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김영옥(1998)은 아동소비자 교육내용을 상위차원 5개 영역(소비자 의식, 금전관리, 구매, 개인 및 공공자원의 사용,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과 하위차원 영역 20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금융소비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위 영역은 '욕구와 희소성', '화폐와 구매력', '소득(용돈)의 소비', '저축과 신용', '경제원리'로 볼 수 있으나 '화폐와 구매력', '저축과 신용', '경제원리' 등은 실과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과 교과서에 '욕구와 희소성'과 '소득(용돈)의 소비'의 내용이 실려 있기는 하나 타교과와 그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7.3%, 27.6%로 그 다지 높지 않았다.

'욕구와 희소성'에 관한 내용은 4학년 실과에서 다루고 있으나 현재의 욕구가 개인의 진실된 욕구인지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충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아동의 상황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소득(용돈)의 소비'의 경우 실과 4학년에서 구체적인 용돈기입장 적기 실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사회 과목 및 도덕 4학년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과목간의 통합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영옥(2001)은 초등학교 소비자치관교육을 7개의 내용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욕구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 교육', '다양한 소비가치와 생활양식 교육', '계획적인 소비 관련 교육' 영역에 대하여 4·5·6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다양한 소비가치와 생활양식 교육'은 초등학교 실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으나 '욕구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 교육' 및 '계획적인 소비 관련 교육'은 4학년 실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 김민경, 조정자(2003)는 김기옥, 김난도, 이승신(2001)과 배윤정(1999)의 정보화 사회의 소비자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7차 교육 과정상의 중학교 1, 2학년의 기술·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 중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이 있는 '재무관리' 영역 교육내용은 중학교 1, 2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전무한 상태였으며 청소년 소비자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무관리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 재무관리 부분에 관한 소비자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2. 사회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은 사회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에서, 3~6학년에서는 사회 과목에서 경제원리 및 개념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이에 연계되어 중·고등학교에서도 사회 과목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와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교양과에 속해 있는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회과 수업을 통해 경제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구한 전홍렬(1997), 안병근(2001), 김영옥(1998), 김영옥(2001), 김영용(2002), 김정호(2002), 김용조(2002) 등이 있다. 전홍렬(1997)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1~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3~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경제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경제 내용은 10개의 기본 개념과 26개

〈표 2〉 사회과(경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 간의 비교

	교육과정	학 교
전홍렬(1997)	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김영옥(1998)	4차 ~ 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김영옥(2001)	4차 ~ 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안병근(2001)	6차 교육과정	중학교
김영용(2002)	6차(일부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김용조(2002)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김정호(2002)	7차 교육과정	초등 3학년~고등학교

2) 10개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문제
2. 소비
3. 직업 및 근로
4. 생산
5. 시장
6. 경제 체제
7. 화폐·금융
8. 재정
9. 국제 경제
10. 경제 성장

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로는 4~5학년에서 경제교육 내용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며 아동들의 사고력 형성에 미흡함과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채, 상업과 유통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안병근(2001)은 미국경제교육협회의(NCEE: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의 '경제학 내용 표준'(VECS: Voluntary National Economics Content Standards)과 '기본 경제개념'을 준거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교육 내용을 검토하였다. 내용 표준³⁾의 경우 17개 중 단지 7개만이 다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교육은 너무 적은 숫자의 경제원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기본 경제개념⁴⁾의 경우 19개 경제개념 중 14개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용어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개념인 '경쟁과 시장구조', '소득분배', '시장실패', '실업',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에 관한 경제개념은 경제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교육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들을 문제시하고 있다.

김영옥(1998)은 아동소비자교육 내용 영역을 상위차원 5개 영역(소비자의 의식, 금전관리, 구매, 개인 및 공공자원의 사용,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과 하위차원 20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이 있는 하위 영역으로는 '욕구와 희소성', '화폐와 구매력', '소득(용돈)의 소비', '저축과 신용', '경제원리'로 볼 수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들 영역을 분석한 결과 다른 교과목 보다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욕구와 희소성'에 관련된 내용은 사회 교과서에서 92.7% 정도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학년에서만 다루어짐으로써 저학년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저축과 신용' 영역은 사회 교과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의 하는 일, 예금의 종류·목적, 은행의 대출 업무, 신용카드 등이 언급되나 신용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제원리' 영역은 전체 교과 중 사회 교과서에서 69.5%정도 다루어졌으나 4·5차 교육 과정에 비하여 6차 교육과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차 교육과정 개정시 사회 과목에서 난이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교육량을 줄인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 분업, 무역과 무역자유화 개념은 사회 5학년에서만 다루어지며 가격 결정과 물가의 내용 등은 6차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김영옥(2001)은 초등학교 소비자가치관교육을 위하여 7개의 내용영역을 마련하였는데, 이 중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 있는 '욕구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 교육', '다양한 소비가치와 생활 양식 교육', '계획적인 소비 관련 교육' 영역에 대하여 4·5·6차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욕구의 무한성과 자원의 희소성 교육'은 4~5학년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으나 저학년부터 교육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소비가치와 생활 양식 교육'의 경우도 3학년 사회에서 중점으로 이루어지지만 '계획적인 소비 관련 교육'은 슬기로운 생활 1~2학년에서 계획구매 및 사회 3~5학년을 통해 잘 조직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영옥(2002)은 연구시점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 시기여서 제 6차 교육과정의 '공통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등 고등학교 경제 교과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사회'는 그다지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경우 내용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으며 틀린 지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대학의 경제원론 교과서를 축약해 놓은 듯 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함을 강조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와 '경제' 및 '생활경제'(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경제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정리한 김정호(2002)는 6차 교육과정기의 암기위주식 교과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생활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습자의 현실 적응력을 키워 나가도록 제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교육의 이론과 실증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하며, 경제교육 내용에 보편적 경제 원리만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첨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제 정보와 보조 자료의 보완과 교수·학습의 효과를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있다. 김용조(2002)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과 관련이 있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목표를 분석하고 3~6학년 사회 교과서를 내용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용분석의 준거는 NCEE(1997)의 기본 개념 틀을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맞게 조정한 13개의 기본 개념, 2개의 측정개념과 방법, 4개의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로 구성된 총 19개 개념을 분석

3) 안병근(2001)은 NCEE(1997)가 제시한 20개 표준 중에 고등학교(9~12학년)에서 다루기를 권장하고 있는 3개를 제외한 17개의 내용표준을 준거로 사용하였다.

4) 안병근(2001)은 NCEE(1997)의 21개 경제개념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는 총공급과 총수요, 통화정책을 제외한 19개의 경제개념을 준거로 사용하였다.

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기초와 미시개념은 충실하였으나 거시, 국제, 측정개념과 방법은 부족했으며 특히 수요와 공급, 국민총생산과 같은 핵심적인 개념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함을 드러냈다. 또한 선진경제들의 일반적인 추세처럼 학교교육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 및 민간단체나 기구들의 창립과 협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학습의 장 개발 부족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분석은 주로 경제교육이나 소비자교육에서 각각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이 어떠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편된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재 금융소비자교육이 교과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은 교과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교육과 연관 있는 '실업과'(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와 '사회과'(사회, 경제, 슬기로운 생활) 과목들 중 현행 출판되고 있는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유목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유목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체계는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소비자 원칙 및 소비자교육에서 다루는 개인재무관리 영역들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 자원을 일생에 걸쳐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능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NCEE, 1997; Jump\$tart, 20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최현자, 박주영, 박호용, 성영애, 손상희, 이희숙, 2003)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교육내용체계를 <표 3>과 같이 도출하고 이를 분석유목으로 선정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⁵⁾.

2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금융소비자교육과 연관 있는 '실업과'(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와 '사회과'(사회, 경제, 슬

기로운 생활) 교과서로 1종도서 및 2종도서 중에서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 있는 과목의 교과서로서 현행 출판되고 있는 전체 교과서를 포함한 총 100권이다⁶⁾. 각 학교급별 분석대상 교과목 및 권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분석 단위는 맥락단위(context unit)로써, 기록단위만으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할 때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인 교과서를 읽어 나가면서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이 서술되어 있거나 삽화 및 사진이 실린 맥락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아 분석유목에 포함시켰다. 내용분석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차지하는 지면, 시간량 또는 출현 빈도 등을 집계하여 분석하는데, 이러한 지면의 분량, 시간량 또는 빈도수 등이 집계체계가 된다(차배근, 1990).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분석 방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집계체계는 쪽수로 본 연구에서도 집계체계로써 쪽수를 사용하였다. 각 분석유목 쪽수를 계산한 방식은 김영옥(1998)과 같이 서술된 문장이 한 쪽의 지면 중에서 일부분만 해당될 경우, 한 쪽의 총 행수를 분모로 하고 해당되는 행수를 분자로 하여 나누어 쪽수를 계산하였다. 삽화·사진의 경우, 한 쪽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실린 삽화·사진의 면적을 분자로 하여 나누어 쪽수를 계산하였다.

본 분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종합적 신뢰도 계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를 연구자와 소비자학 분야의 박사 및 박사과정 2명 그리고 경제학 분야의 박사 1명 등 모두 4인이 분석한 후 분석자들 간의 상호 일치 정도를 보았다. 종합적 신뢰도 계수는 분석자 1, 2, 3, 4 간의 분석유목에 대한 평균 일치도를 구한 다음 이 평균 일치도를 토대로 종합적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으며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영역의 분석유목 신뢰도 계수는 0.93으로 본 연구의 내용분석은 신뢰할 만 한 수준이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실업과 교과목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실업과의 교과목은 초등학교의 「실과」와 중학교 1, 2, 3학년(7, 8, 9학년)의 「기술·가정」 그리

5) 분석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현자, 최은진(2005)을 참조하기 바람.

6) '교양과'의 생활경제 과목의 경우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이 있으나, 국가에서 발행하는 1종도서 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을 거친 2종도서가 아닌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경제 교과서는 특정지역에서 인정받은 교과서로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아 분석대상 과목에서 제외시켰다.

〈표 3〉 학교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체계 분석틀

대영역	소영역	내 용 요 소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영역	소영역	내 용 요 소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I. 기본 경제 원리	희소성과 선택	욕구의 희소성	○	○	○	III. 개인 재무 관리	재무설계의 이해	예산의 필요성 및 예산계획 결산하기	○	○	○	
		선택에 따르는 혜택과 비용		○	○			소득	소득의 원천	○	○	○
	한계의 원리		○	○	직업 선택과 경력개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시장과 가격	교환	○	○			○	소비	구매의사결정과정	○	○	○
		수요와 공급	○	○	○		지불방법		○	○	○	
	화폐	화폐기능과 가치	화폐의 수요와 공급	○	○		○	저축	저축의 필요성	○	○	○
			화폐의 수요와 공급		○		○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	○	○	○
금리	금리의 기능	금리의 종류	○	○	○	투자	투자의 기본원리	○	○	○		
		금리의 결정		○	○		주식투자	○	○	○		
인플레이션	물가	물가지수의 산정	○	○	○	신용	채권투자	○	○	○		
		인플레이션과 재무의사 결정		○	○		수익증권투자	○	○	○		
외환과 환율	외환의 기능	환율의 결정	○	○	○	보험	신용관리	○	○	○		
		환율과 재무의사결정		○	○		신용카드	○	○	○		
II. 금융 환경	금융 시스템	금융시스템의 역할	○	○	○	노후 대비	위험관리와 보험	○	○	○		
		금융제도의 변화		○	○		보험의 종류	○	○	○		
	금융시장	금융시장의 기능과 종류	○	○	○	세금	생명보험의 의의 및 종류	○	○	○		
		단기금융시장		○	○		손해보험의 의의 및 종류	○	○	○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역할	○	○	○	IV. 금융 소비자의 역할	사회보험의 의의 및 종류	○	○	○		
		은행	○	○	○		신보험상품	○	○	○		
금융기관 이용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	○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	노후설계의 필요성	○	○	○			
	보험회사		○	○		노후설계하기	○	○	○			
III. 개인 재무 관리	재무 설계의 이해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	○	○	증여와 상속						
		재무설계 과정		○	○	세금의 종류						
	지출계획		○	○	세금과 소득							
					세금과 정부서비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금융리스크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책임과 역할							
					금융분쟁의 해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환경 조성							
					기부문화							
					공익존중							
					청부의식							

〈표 4〉 분석대상 교과서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슬기로운생활	슬기로운생활	사회	사회	사회	사회	기술·가정	기술·가정	기술·가정	기술·가정	가정과학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12권	10권	10권	12권	3권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사회	사회	사회	사회	경제	
				실과	실과	10권	9권	8권	8권	4권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기술·가정」과 선택교과목인 고등학교 2, 3학년(11, 12학년)의 「가정과학」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1)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에서 실과를 배우고 있으며 실과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요소는 모두 5명역이었다. 실과 5학년에서는 “용돈아껴쓰기”라는 단원을 통하여 지출 및 예산 계획을 세우고 결산까지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배우고 있었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직접 조사하거나 입·출금 전표 작성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직접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돈기입장 작성과 같은 교육내용의 경우 단원 전체에서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어 교육제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과 6학년에서는 금융소비자교육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다만 “일과 직업의 세계”라는 단원에서 직업을 갖는 이유 중 하나로서 경제적인 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도움을 주는 교육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의 직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김혜자, 전경란, 이은희(1997)는 6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가정교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합리적인 용돈쓰기’ 밖에 없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현행 초등학교 실과 교육에서도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중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총 11개의 금융소비자교육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욕구와 희소성, 선택에 따르는 혜택과 비용, 지출계획, 구매의사결정,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익존중 등 6개 내용요소는 사회과에서도 중복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었다.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소비 및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중심으로,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직업 선택에 관하여 일부 다루어지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A출판사 기술·가정 교과서의 경우 타출판사와는 달리 자원의 효율성을 설명한 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대해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과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은 경제 개념을 기술·가정에서도 적용하여 과목간의 통합성 원리를 적절히 응용한 것으로 보였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의 소득, 소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교육내용이 포함되

어 있었으며 재무설계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재무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들은 없었다. A출판사 교과서는 재무설계 과정을 용돈관리에 적용한 점이 특징적이었으나 체계적인 지출항목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못하였다.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소비와 관련된 구매의사결정 과정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지불방법 내용요소의 경우 일부 교과서에서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금지불, 할부지불, 신용카드 등의 단순한 설명에 그치고 있었다. 다만 B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지불방법의 하나로써 신용카드를 설명하면서 참고자료로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역할 대영역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영역에 대한 교육내용은 사회 교과서와 유사하여 금융소비자 관점에서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소개하고 있었다. 다만 사회 교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자로서의 역할 및 소비자 책임의식을 강조한 점이 달랐다.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도 있었으나 일반 상품에 대한 피해상담 위주여서 금융리스크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이 언급되지 못하였다. 각 출판사별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전자상거래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복잡한 금융기관 구조 및 전문적인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문제 발생시 피해구제절차 혹은 상담 기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 외에 A·B·H 출판사 교과서에는 사회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소비문화를 형성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공익 추구의 교육내용을 기술하고 있었다.

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이 거의 없지만 직업 선택에 대한 내용요소가 있었다.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단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써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C·E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기록표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있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직업 선택과 소득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H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직업 준비를 위해 교육, 훈련, 자격증, 시험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그 외에 경력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육내용이 생략되었다. 또한 다수의 출판사 교과서에서 진로와 관련된 진학탐색과 직업탐색에 대하여 체계적인 구분 없이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기술·가정 과목은 의·식·주·소비 생활을 중점으로 한

〈표 5〉 실업과 및 사회과 교과목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결과

(단위: 쪽)

영역	소영역	내 용 요 소	실업과							사회과							경제	
			실과5	실과6	기과7	기과8	기과9	기과10	기과11	과2-2	사3-1	사4-1	사4-2	사5-2	사회7	사회8		사회9
I. 기본경제원리	최소성과 선택	욕구와 최소성 선택에 따르는 혜택과 비용 한계의 원리 기회비용				0.1											2.2	1.8
	시장과 가격	교환 수요와 공급 가격의 결정과 역할				0.0					2.0	2.5	1.0				1.4	2.0
	화폐	화폐기능과 가치 화폐의 수요와 공급															1.0	0.8
	금리	금리의 기능 금리의 종류 금리의 결정 금리와 재무의사 결정							0.1								0.2	1.5
	인플레이션	물가 물가지수의 산정 인플레이션과 재무의사 결정									2.0	4.5	1.0				1.0	5.2
	외환과 환율	외환의 기능 환율의 결정 환율과 재무의사결정															0.2	7.3
																	0.0	0.7
II. 금융환경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의 역할 금융제도의 변화																0.1
	금융시장	금융시장의 기능과 종류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0.7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역할 은행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중개 보조기관		1.0					0.0								3.0	0.1
	금융기관 이용	금융기관의 선택 금융서비스의 종류와 활용		3.0					0.0								2.0	0.3
III. 개인재무관리	재무설계의 이해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재무설계 과정 지출계획 예산의 필요성 및 예산계획 결산하기	1.0					4.0	0.3								0.1	0.4
	소득	소득의 원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 선택과 경력개발	1.0					1.2	1.8								0.1	0.1
	소비	구매의사결정과정 지불방법	1.0		0.0		0.1	1.2			2.0						0.1	0.1
	저축	저축의 필요성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	3.0		0.0		0.0	1.4			3.0						0.2	0.0
	투자	투자의 기본원리 주식투자 채권투자 수익증권투자 선물/옵션투자 부동산투자					2.2		0.1	0.4							0.2	2.2
									0.3								0.4	2.0

〈표 5〉 계속

(단위: 쪽)

영역	소영역	내용요소	실업과							사회과										
			실과5	실과6	기과7	기과8	기과9	기과10	가과핵	습2-2	사3-1	사4-1	사4-2	사5-2	사회7	사회8	사회9	사회10	경제	
III. 개인재무관리	신용	신용관리 신용카드				0.1			0.5 0.7											0.1
	보험	위험관리와 보험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의 의의 및 종류 손해보험의 의의 및 종류 사회보험의 의의 및 종류 신보험상품							0.4											
	노후대비	노후설계의 필요성 노후설계하기 증여와 상속																		
	세금	세금의 종류 세금과 소득 세금과 정부서비스																	0.0 1.3	0.7
IV. 금융소비자의 역할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금융소비자의 책임과 역할				2.9													0.9	
	금융소비자보호	금융분쟁의 해결																		
	금융환경 조성	기부문화 공익준중 청부의식				0.4													0.1 3.5 0.1	0.5 0.8

가정 과목과 기술과목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접목된 실업과 과목이다. 기술·가정 교과서에서는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재무관리 대영역만이 다루어졌으며 9개의 내용요소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재무관리 대영역 내에서도 재무설계의 이해 소영역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소득, 소비, 저축, 투자, 신용, 보험, 노후대비, 세금 등의 소영역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재무설계의 이해 소영역에 관하여 가족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위주의 설명을 함으로써 실제 재무설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적었다. C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재무설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D, G, H, I, K 출판사 교과서들의 경우 재무설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런 반면 B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재무설계의 탐구과제로써 주택마련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가족확대기에는 근로자 가구의 연령별 교육비 지출을 제시하였으며, 가정축소기에는 은퇴기의 생활자금 마련방법으로써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한 생활설계 예시를 보여주었다. 또한 가계 자산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은행, 증권, 부동산 투자 등의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이 외에 K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장기가계 설계의 실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출계획과 예산계획을 확실히 구분하여 보여주었다.

4) 가정과학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가정과학은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이다. 가정과학 과목에서는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22개의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재무관리 대영역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 기본경제원리 대영역과 관련하여 A 출판사 교과서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다루고 있었으며,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금융환경 대영역 내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극히 미약하게나마 설명하고 있었다.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에서는 기술·가정 과목과 유사하게도 재무설계의 이해 소영역 중심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기술·가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던 지출계획, 예산의 필요성 및 예산계획, 결산하기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소득 소영역의 경우 소득의 원천을 B 출판사의 교과서에 서만 유일하게 다루었으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직업선택과 경력개발 등의 내용들은 타과목처럼 포함되어 있지 못하였다. 저축 소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로서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축에 관하여 A 출판사 교과서는 장기·단기 상품,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대출을 위한 상품, 세금우대를 위한 상품, 특수한 목적을 위한 상품 등을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각 상품들의 특징이나 장단점 비교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였다. 투자 소영역에 관하여 미약하나마 투자의 기본원리, 주식투자, 채권투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은 있었으나 용어 해설 수준이었다. 신용 소영역과 관련하여 소비자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A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소재목이 소비자신용의 활용이었으나 신용카드의 법률상 정의 및 의의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A, B, C 출판사 교과서들 모두 서비스 신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C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소비자신용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국한하여 설명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보험 소영역에 관하여 공보험, 사적보험 등 이에 해당하는 보험 종류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특히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공보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써 고용보험이 누락되었으며, C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보험의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진자료로써 보험사가 있는 거리를 보여주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내용요소들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 선택과 경력 개발, 구매의사결정과정, 저축의 필요성, 수익증권투자, 선물/옵션투자 생명보험의 의의 및 종류, 손해보험의 의의 및 종류, 사회보험의 의의 및 종류, 신보험상품 등 이었다. 특히 개인재무관리영역의 소영역으로써 노후대비와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

2. 사회과 교과과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과의 교과목은 초등학교의 「슬기로운 생활」과 「사회」, 중학교 1, 2, 3학년(7, 8, 9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사회」와 선택교과목인 「경제」로 금융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과 사회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슬기로운 생활과 사회를 통해 학습하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요소는 모두 13개 영역이었다. 이 중 금융기관의 역할, 은행, 지출계획, 예산의 필요성 및 예산계획, 결산하기 등 5개의 내용요소는 실과와 중복되어 있는 내용요소이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슬기로운 생활 과목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2학년 2학기의 “가게놀이하기” 단원이 해당된다. 저학년 아동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가게놀이 방식을 주로 삽화나 사진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구매의사결정과 관련된 소비 내용들을 전달하였다. 아동들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며, 물건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교환에 관한 내용은 2.0 쪽,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은 0.5 쪽 정도였다. 물건 구입시 품질비교, 인터넷을 통한 가격비교 등의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이 1.3 쪽 정도로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는 사회 과목을 배우기 시작한다. 3학

년 1학기 사회에서는 “고장생활의 중심지”라는 단원에서 시장에 대하여 배우고 있었다. 이 단원에서는 시장의 경제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의미로써의 시장을 설명하고 있는 교육내용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이 4.5 쪽, 교환에 대한 내용이 2.5 쪽이었다. 저학년 아동임을 감안하여 주로 만화, 삽화 등의 간접적인 설명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장과 시장에서 하는 일을 보여주는 사진 등이 중복되어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도 인터넷이 친숙함을 전제로 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입 등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삽화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기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다.

4학년 사회 교과서의 경우에도 사진이나 삽화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이전 학년에 비해 개념 등에 대한 설명방식이 사용되었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는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단원에서 지역사회에 따라 생산 활동 및 경제 활동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담고 있었으나, 이 중 금융소비자 교육 관점에서의 교환 및 수요와 공급 내용은 각각 1.0 쪽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물건바꾸기’ 놀이 학습활동을 통해 교환의 개념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만화를 통해 화폐의 기능과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4학년 2학기에서는 “가정의 경제 생활”이라는 단원에서 이전 단계에서 배우지 않았던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에 관한 교육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경제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인 욕구와 희소성에 대한 교육내용을 전달하였다. 욕구와 희소성은 삽화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은 많지만 다 가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으며 한정된 소득아래 꼭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에 대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가정에서는 소득이 필요함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여러 직업에 관한 사진들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은행 견학을 통하여 은행에서 하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저축의 필요성, 예금의 종류에 관한 삽화 및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와 아동들의 용돈기입장 작성을 통해 결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는 있었으나 앞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출계획과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계획을 통한 지출 및 결산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5학년의 경우 2학기 사회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단원을 통해 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단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생활을 알아 볼 수 있는 각종 경제 정보를 중심으로 경제의 발전 과정과 성장 요인 등

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시장경제 체제 중심의 교육내용이어서 엄밀히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존중에 관한 것밖에 없었다. 주로 그 동안의 경제 성장과 IMF직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의 공익존중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2)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3학년 과정뿐으로 19개의 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상 학생들은 중학교 사회 과목을 통하여 경제, 사회, 역사 영역을 통합하여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은 기본경제원리 대영역으로써 희소성과 선택, 시장과 가격, 화폐 등 3개의 소영역과 관련된 기본경제 개념이 많았다. 경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예시와 삽화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선택에 따르는 혜택과 비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C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인어공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어공주의 선택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문을 삽입하였다. F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학교 앞 떡볶이 가격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을 대비시킨 삽화를 제시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가격 변동을 영화관의 시간대별 가격변화를 통하여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희소성과 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요소 중 한계의 원리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는 없었다. 분석 대상 교과서 중 화폐에 대하여 언급한 교과서는 6권 밖에 되지 않았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화폐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환의 편이성 때문에 화폐가 필요하다거나 단순히 화폐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금리의 기능에 대해 G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삽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타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금융환경 대영역과 관련된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은 중학교 1~3학년 사회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통하여 거시적 경제 환경의 일부인 금융시스템, 금융시장 등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없었으며 금융기관간의 차이점 및 금융기관 선택 방법처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없었다.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은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지출계획, 소득의 원천, 구매의사결정과정, 저축의 필요성, 세금과 정부서비스 등의 한정적인 내용요소 중심으로 금융소비

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내용요소는 미약하게나마 F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만 삽화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연속인 인간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F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계획적인 소비를 위한 준비로써 지출계획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지출계획에 대한 교육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저축의 필요성도 초등학교에서 배우던 내용에 비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저축과 소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저축, 투자, 보험, 노후대비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정보를 접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용관리에 관한 교육내용이 전혀 없었다. 세금은 주로 납세자로서의 역할 및 정부서비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그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나 소득과 관련된 세금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고소득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도입에 관한 기사를 탐구활동으로 부가한 F 출판사 교과서의 보충자료에서 세금과 정부서비스 외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금융소비자의 역할 대영역에서는 권리와 의무, 기부 의식, 공익존중, 청부 의식 등의 내용요소 등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중학교 사회 3학년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서 소비자권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내용은 생략되어 있었다. 공익존중에 관한 내용들도 국산품 애용, 과소비 추방, 저축과 소비의 균형, 빈부격차 해소 등 개인의 소비에 대한 절제와 검약을 강조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써 공익존중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질서구현 차원에서의 공익존중만을 가르치고 있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한 경제자원을 기부하는데 중점을 둔 가치관 교육이 부족하였다.

3)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7개의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본경제원리 대영역의 화폐, 인플레이션, 외환과 환율 등의 소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요소 및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의 소득, 저축 등의 소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요소 일부를 다루고 있었다.

중학교 사회에서는 개별경제주체의 경제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면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기본경제원리 대영역 내의 인플레이션 소영역에 관하여 경제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전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고

려하여 재무의사결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고등학교 사회과목 목표에 맞추어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의 변화 및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 보유자와 실물자산 보유자, 봉급생활자, 채권자와 채무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자료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이자율 감소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고 투기가 증가한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무의사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없었다.

외환과 환율 소영역에 있어서도 외환의 기능 및 환율과 재무의사결정에 관한 내용보다는 주로 환율의 결정에 관한 것이 많았다. 외환을 국제수지와 함께 다루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개인의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C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면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시기를 당기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는 정도였다. G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에도 환율변동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업자와 여행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정도밖에 설명되지 못하였다.

특히 금리의 결정 및 물가에 관한 내용요소들을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에 대하여 사회문제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물가 변동의 원인을 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하여 기술하여 화폐의 가치가 물가수준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금리의 결정은 G 출판사 교과서에서만 미약하게나마 다루는 정도였다.

개인재무관리 대영역과 관련하여 사회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요소로는 소득의 원천, 저축의 필요성 뿐이었다. 소득의 원천에 대하여 유일하게도 A 출판사 교과서만이 가계가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의 소득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 선택과 경력개발에 관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가계의 측면에서가 아닌 국가 경제 성장의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금융환경 대영역 및 금융소비자의 역할 대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후무한 실정이었다.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어 질 법한 금융환경 대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인 금융시스템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도 없었으며 금융소비자의 역할로서 기부문화 조성 혹은 청부의를 위한 교육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초·중학교의 교육내용과 반복되어 국민의 근검절약, 과소비 추방 등

의 공익증중에 관한 내용들만 있었다.

4) 경제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경제 과목은 사회과의 심화선택과목으로써 사회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총 23개의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과목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도 금융환경 대영역에 관한 교육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기본경제원리 대영역 이외의 개인재무관리 대영역과 금융소비자의 역할 대영역의 경우 일부의 내용요소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기본경제원리 대영역에서는 희소성과 선택 소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요소들이 읽기자료와 삽화들을 통해 쉽게 전달되고 있었다. 시장과 가격 소영역의 내용요소로서 가격의 결정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격 결정에서부터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시장의 균형 가격이 변동되어 결정되는 것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A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수요와 공급을 가위의 윗날과 아랫날로 비유한 것이 학생들에게 개념을 전달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금리 소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요소로서 금리의 종류에 대하여 A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콜금리, 채권수익률, 유통수입률 등을 언급하는 정도이며 D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지급준비율, 콜금리, 재할인금리, 대출금리, 예금 금리를 아주 간략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외 출판사에서는 전혀 설명되어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소영역과 관련하여 물가지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었으며 GDP 디플레이터는 실제 수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개괄적인 설명으로 넘어가는 정도였다. 외환과 환율 소영역에 있어서는 외환의 기능보다는 주로 환율의 결정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었다. 특히 외환은 국제수지 개선을 중요시하는 교육이다 보니 재무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에서는 재무설계의 이해, 소득, 소비, 저축, 신용, 세금 등의 소영역과 관련된 일부 내용요소들이 경제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출판사별 교육내용 포함여부에 차이가 많았으며 특히 신용관리는 B 출판사의 교과서에만 미진하게나마 다루어지고 있었다. 재무설계의 이해 소영역에 있어서는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지출 및 예산계획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재무설계 과정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소득 소영역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소득의 원천으로써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다루었으며 경상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 소득으로 분류됨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 소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로서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B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자동차 구입과 퇴직금을 이용한 투자대안에 적용하는 자료를 제시

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저축 소영역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국가 경제 성장 차원에서 언급되어졌으며, 세금 소영역의 경우 세금의 종류 및 정부서비스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었다. B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누진세율과 금융소득종합과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소득에 따라 세율을 조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금융소비자의 역할 대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A 출판사 교과서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관한 읽기 자료를 통해 부는 도덕적 의무의 원천임을 밝히고 기부에 관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출판사에서는 기부문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한 공익증진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편성되어 초·중학교와 반복되고 있었다. 금융리스크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책임과 역할, 금융분쟁의 해결 등의 내용요소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기본경제원리 대영역과 관련하여 교환, 금리의 기능, 금리의 결정, 물가 등에 대한 내용요소들을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현행 학교에서는 중학교 사회보다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리의 기능과 금리의 결정에 관한 내용요소 포함여부가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금융환경 대영역은 사회 과목과 마찬가지로 경제 과목에서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다. 개인재무관리 대영역에서 투자, 보험, 노후대비 소영역과 관련된 내용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던 세금의 종류, 세금과 정부서비스 내용요소들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실업과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 요소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실과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 은행, 지출계획, 예산의 필요성 및 예산계획, 결산하기 등의 5개의 내용요소는 사회과목과 중복되어 있다. 중학교의 경우 욕구와 희소성, 선택에 따르는 혜택과 비용, 지출계획, 구매의사결정,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및 공익증진 등 6개의 내용요소가 사회와 기술·가정에서 중복되어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에서 다루고 있는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및 지출계획은 중학교 3학년 사회과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각 교육영역별로 심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금융소비자교육내용요소 중 극히 일부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심화교육보다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의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이 교환 및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정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위의 두 영역은 슬기로운 생활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도입되어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1학기의 사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에 다시 또 다루어지고 있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개인재무관리영역 중 지출계획영역은 5학년 실과와 8학년과 10학년의 기술·가정,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의 사회과에서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예산의 필요성 및 예산계획 그리고 결산하기 영역은 5학년 실과와 8학년과 10학년의 기술·가정 및 초등학교 4학년 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이 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기술·가정과 사회 과목에서 전혀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학년에서도 기술·가정 과목에서 주로 소비와 관련된 구매 의사결정 중심으로만 배우고 있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학년에서는 사회 교과서에서 기본경제원리 대영역을 다루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술·가정 교과서는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직업선택에 관한 내용이 일부 기술되어 있어 중학교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정과 사회에서 중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실업교과와 사회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금융소비자교육영역은 36개 영역으로 실업교과에서 19개 영역이 사회과에서 28개 영역이 다루어졌으며 이중 11개 영역은 두 교과에서 중복되어 다루어졌다. 현재와 같은 교과과정으로는 성공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할지라도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대폭 확충해야 하며 사회과와 실업과에서 다루는 금융소비자교육의 효율적인 분장이 요구된다. 사회과에서는 기본경제원리와 금융환경영역 중 일부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실업과에서는 개인재무관리영역과 금융소비자의 역할 영역 그리고 금융환경영역 중 금융기관이용하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나 경제 또는 기술·가정과는 별도로 미국과 같이 정규교과과정에서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만을 다루는 교과목(Personal Finance)인 가칭 '개인재무관리' 또는 '소비자채무관리'의 신설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국민은행연구소(2002). 20대 및 한·미·일 대학생의 소비·금융의식과 금융이용행태 조사결과 분석보고서. 국민은행연구소.

김기욱, 김난도, 이승신(2001). 소비자정보론. 시그마프레스.

김영옥(1998). 학교 아동소비자 교육내용의 구성과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1). 초등학교 소비자가치관교육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05-219.

김영용(2002). 고등학교 경제 교과 과정 및 교과서 분석. 경제교육연구, 8, 157-183.

김용조(2002). 사회교과서 경제영역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 7차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8, 73-110.

김정호(2002). 제 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 경제교육연구, 8, 51-71.

김종호(1993). 초등학교 소비자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구 실과교육연구), 7, 5-36.

김혜자, 전경란, 이은희 (1997). 초·중등 교과서 분석 연구 -제 6차 교육과정의 가정교과를 중심으로-. 가정과교육학회지, 10(1), 115-128.

배윤정(1999). 정보사회의 소비자교육내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병근(2001).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교육 내용의 검토. 경제교육연구, 7, 225-250.

이승신, 김민경, 조정자(2003). 7차교육과정의 학교소비자 교육 내용 분석 -중학교 1, 2학년 「기술·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231-248.

전홍렬(1997).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경제교육연구, 3, 177-221.

차배근(1990).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최현자, 박주영, 박호용, 성영애, 손상희, 이희숙(2003). 금융소비자교육용 기본텍스트제작 용역과제 중간보고 자료(미간행내부자료).

최현자, 최은진(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3), 111-1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Jump\$tart Coalition (2002).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2nd Edition).

NCEE (1997).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U.S.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2002). *Integrating Financial Education Into School Curricula*. U.S. Department of Treasury.

(2005년 10월 31일 접수, 2006년 4월 12일 채택)